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8645

발의연월일 : 2010. 6. 21.

발 의 자 : 황진하・권경석・김광림 김무성・김옥이・김장수 김충환・박 진・유정현 정옥임・이해봉・조윤선 조진래 의원(13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이 621,479명의 한국군과 154,881명의 UN군, 그리고 990,968명의 민간인 인명피해와 헤아릴 수 없는 재산적 및 문화적 손실을 대한민국에게 초래한 사실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권을 수호하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함께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등 16개 참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각종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음을 기억하고 이를 감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전쟁 60주년이 된 오늘까지도 수많은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귀환하지 못하는 등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과 그치지 않는 대남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에 대한민국이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서 희생된 국군 및 UN군 용사들과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며, 헌신적으로 참전한 국군 및 UN군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6.25전쟁 중 대한민국과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UN 기치 하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이상 참전일 순) 등 16개국과 의료지원과 시설 파견을 해준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 그리고 37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참혹한 민족상잔의 전쟁 중에 각종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해 주었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레바논, 라이베이아, 멕시코,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등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60년 전 남침을 감행한 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며,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외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참전국들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전쟁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전쟁의 잿더미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 대한민국의 성취를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회가 전쟁에서 희생된 국군, UN군 및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고, 참전용사들과 각종 지원을 해준 국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폐기 및 대남 도발 중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 수호 노력을 촉구하면서, 평화와 인류공동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임.